

나쓰메 소세키 작품 『夢十夜』 「第七夜」와 최인훈 작품 『광장』에 나타난 투신자살 비교 연구

권혁건* · 임성규**

目 次

1. 서 론
2. 선행연구 고찰
3. 『夢十夜』 「第七夜」에 나타난 투신자살
 - 3.1 작품 구조와 시대적 배경
 - 3.2 주인공 「나」의 투신자살 동기와 배경
 - 3.3 투신 이후 체공시간의 깨달음
4. 『광장』에 나타난 이명준의 투신자살
 - 4.1 작품 구조와 시대적 배경
 - 4.2 이명준의 투신자살 동기와 배경
5. 『夢十夜』 「第七夜」와 『광장』에 나타난 유사점
6. 『夢十夜』 「第七夜」와 『광장』에 나타난 차이점
7. 결 론

1. 서 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서는 체험할 수는 없고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대행해 줄 수가 없다.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죽음을 체험해 보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이 간접적 죽음체험을 통해 인간은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¹⁾

인간의 죽음 가운데 자살은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부과하는 죽음이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자살은 주인공 개인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혹은 정신적으로 혼자서는 이겨내지 못할 고독과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할 때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작품 『夢十夜』는 1908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7월 26일과 8월 1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된 작품이다.

『夢十夜』가 발표될 시기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1907년 7월 당시 한국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 동의대학교 교수 일본근대문학

** 천안대학교 조교수 일본근대문학

1) 이인복 『죽음과 구원의 문학적 성찰』 (우진출판사, 1989년 11월) 182면 참조.

(伊藤博文)는 헤이그밀사사건에 대해 고종 황제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퇴위를 강요했다. 이에 분개한 서울 시민 2,000여명이 고종 양위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고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1908년 1월에는 의병들이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으나 일본군의 선제 공격으로 패배했다.²⁾ 일본에서는 1908년 4월에 러시아와 일본의 사할린 경계 확정서가 조인되었고, 제1회 브라질 이민선이 고베항을 출발했다.³⁾

『夢十夜』 「第七夜」는 매일 밤낮으로 끊임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배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배 안에서 세상 만사에 흥미를 잃은 「나(自分)」는 마침내 죽기로 마음먹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런데 자신의 발이 갑판을 떠나 배와 인연이 끊어진 그 순간에 갑자기 목숨이 아까워짐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싫으나 좋으나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최인훈(崔仁勳, 1936~)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장(廣場)』은 1960년에 발표된 소설이다. 이 작품은 광복(光復) 직후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고뇌하며 방황하는 지식인 청년의 삶의 모습이 그려졌다. 주인공 이명훈은 포로들을 싣고 가는 인도 상선 타고르호가 남지나해를 지나 항해하는 어느 날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쓰메 소세키 작품 「第七夜」와 최인훈 작품 『광장』의 주인공 남자는 배 안에서 바다로 투신하여 자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한일 양국의 문학 작품에 형상화되어 나타난 주인공의 선상에서의 투신자살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다. 위와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한일 양국 근현대화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을 갖고 있는 점도 있다.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두 작품에 나타난 구성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내려고 한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한일 양국 근현대화의 역사적 특수성에 관하여 점검해 보겠다.

2. 선행연구 고찰

이제까지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발표된 『夢十夜』 연구물은 500편 이상이다.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夢十夜』에 관한 연구물은 35편 이상이다.

『夢十夜』에 관련된 선행연구물을 여기에 전부 소개할 수는 없다. 때문에 본 논문 테마와 비슷한 『夢十夜』를 비교문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물을 점검해 보겠다. 히라카와 스케히로(平川祐弘) 씨의 「아이를 버린 아버지-한의 민화와 소세키의 『夢十夜』-」(1976년), 히야마 히사오(桧山久雄) 씨의 「不明不暗으로 사는 사람」(1977년), 하가 도오루(芳賀徹) 씨의 「나쓰메 소세키-회화의 영지」(1984년), 윤상인(尹相仁)의 씨의 「『夢十夜』 第十夜の 돼지의 모티프에 대하여-회화 체험과 창작의 사이」(1989년), 이국동(李国棟) 씨의 「『野草』와 『夢十夜』」(1993년), 임충(林叢) 씨의 「『野草』와 『夢十夜』」(1993년), 권혁건 씨의 「『第三夜』와 『沈清伝』」(1997년), 「한국 괴담 「아리따운 귀신의 유혹」과 『夢十夜』 「第十夜」의 비교연구」(2002년), 「『夢十夜』 「第六夜」와 『無影塔』에 나타난 일한 조각예술관의 비교연구」(2002년),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 「第四夜」와 한국 고전문학 『公無渡河歌』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 비교」(2002년) 등이 있다.

2) 하일식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한국사』 (일빛, 2002년02월) 244~247면 참조.

3)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2001년05월) 418~419면 참조.

위의 연구물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보면, 히라카와 스케히로(平川 祐弘) 씨의 논문은 「第三夜」와 일본 민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이다. 하가 토오루(芳賀 徹) 씨와 윤상인(尹相仁)의 씨의 논문은 나쓰메 소세키가 영국유학 시절 런던에서 보았다고 추측되는 브리톤 리비아(Briton Riviere, 1849~1920) 작품 「가다라(ガダラ) 돼지의 기적」과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한 연구물이다. 히야마 히사오(桧山久雄) 씨와 이국동(李国棟) 씨, 임충(林叢) 씨의 논문은 「『野草』와 『夢十夜』」와의 영향 관계를 논한 연구물이다. 권혁건 씨의 연구물은 『夢十夜』의 각 작품과 한국, 중국문학과의 비교에 관한 고찰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인 연구자에 의하여 발표된 『夢十夜』에 관한 연구물 가운데 「第七夜」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최명희 씨의 「『夢十夜』論-第一夜·第七夜를 중심으로-」와 「『第七夜』覺書」 2편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명희 씨는 「第七夜」에 나타난 불안한 정서(情緒)의 원인은 문명비판과 신(神)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한 인간존재에 관련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자아의 자각이라고 논했다.⁴⁾ 또한 「第七夜」에는 「무한의 후회와 공포」를 초래한 선택의 반복으로서의 생의 양상이 주제로 나타나 있다고 논했다.⁵⁾

국내외에서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물 가운데 「『夢十夜』 「第七夜」와 『땅장』에 나타난 투신자살 비교」에 관련 있는 선행 연구물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비슷한 연구 테마조차도 전무한 상태이다.

3. 『夢十夜』 「第七夜」에 나타난 투신자살

3. 1 작품 구조와 시대적 배경

「第七夜」를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 판 문고본으로 읽으면 4페이지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다. 하지만 문학적인 깊이가 있고 의미하는 것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第七夜」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第七夜」는 위에는 태양과 아래는 바다라는 명확한 공간구조 속에 큰배가 매일 끊임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파도를 가르고 나아가고 있다.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큰배를 타고 있다.

태양(太陽)은 창조자, 장엄, 권위, 위대한 여행자, 고독한 탐험가 등을 상징하고 있다.⁶⁾ 하지만 「第七夜」에 묘사된 태양은 파도 밑으로부터 시뻘겋게 달구어진 부젓가락 같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태양이 빨강게 달구어진 부젓가락처럼 「치~익」 소리를 내고 다시 파도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第七夜」에 묘사된 태양은 시뻘겋은 의미를 포함한 대단히 격렬한 인생을 살아 온 궤적(軌跡)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서 태양이 바다로 지는 장면을 「치~익」 소리를 내면서 파도 밑으로 가라앉아 갔다고 표현되었다. 여기서 빨강게 달구어진 태양이 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치~익」 소리를 내

4) 崔明姬 「『夢十夜』論-第一夜·第七夜を中心として-」(『日本研究』4、慶南大日本問題研究所、1993年6月) 141~159면 참조.

5) 崔明姬 「『第七夜』覺書」(『国文』第84号、お茶の水女子大学、1996年1月) 43~51면 참조.

6) 山下主一郎 他9人訳 『イメージ・シンボル事典』(大修館書店、1989年 5月) 612~614면 참조.

었다고 하는 감각적 표현을 고려해보면 「치~익」 소리는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다.

바다는 원초(原初)의 창조를 나타내며, 모든 것이 태어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신비적인 장소(場所), 유동(流動), 죽음(死), 때(時), 영원(永遠), 고독(孤獨)을 상징하는 것이다⁷⁾ 「第七夜」에 묘사된 「푸른 파도가 검붉은 색깔로 들끓는다」·「바다 물 빛깔이 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려해보면 작품에 나타난 바다는 공포와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조차 「치~익」 소리를 내며 그 속으로 들어가 죽는 장소가 바다라고 한다면 「第七夜」에 묘사된 바다는 단순히 죽음과 공포의 의미뿐만 아니라 포용(包容)을 상징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있는 큰배는 사사부치 도모이치(笹淵友一) 씨가 논하고 있는바와 같이 인간세계,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다.⁸⁾ 작품에 묘사된 큰배는 명치시대 당시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이용했던 증기선(蒸氣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기선은 19세기 이전 일본에 없었던 배이므로 근대문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큰배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第七夜」에 묘사된 큰배는 대단히 불안정한 장소임을 암시하고 있다.⁹⁾

「第七夜」에 묘사된 큰배와 선상 정경(情景)이 작자인 나쓰메 소세키의 체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19세기 이전까지 일본에는 없었던 증기선에서 일어난 일이고, 항해해 가는 선상 정경과 배에 탄 외국인들과의 이야기를 작자가 한번도 체험, 경험하지도 않았던 것을 허구로 묘사했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1900년 5월 구마모토(熊本)에 있는 제오고등학교(第五高等學校)의 교감 대리로 근무 중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부성으로부터 제오고등학교 현직에 있는 채로, 「영어 연구를 위해 만 2년간 영국으로 유학을 명한다」라는 사령장을 받았다. 그는 일본 문부성 제1회 관비 유학생으로 영어 연구를 위해 유학을 명령받았던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문부성의 명령에 따라 1900년 9월 8일에 영국 유학을 가기 위해 독일 배 「프로이센호(프로이센號)」에 승선했다. 그를 태운 프로이센호는 요코하마(横浜)의 항구를 출발하여 영국의 런던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상해(上海)를 비롯한 이곳 저곳 항구에 들렀다가 인도양을 거쳐 이탈리아의 제노바항에 입항했던 날이 10월 19일, 요코하마를 떠난 뒤 정확히 41일째 되는 날이었다. 제노바항에 도착하여 상륙한 후, 다음날 파리의 기차에 몸을 실었다. 10월 21일 파리에 도착한 나쓰메 소세키는 만국박람회(万国博覽會)를 구경하고 나서 10월 28일 도바 해협을 건너 런던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第七夜」에 묘사된 큰배와 선상 정경은 1900년 9월과 10월에 그가 영국 유학을 가기 위해 독일 배 「프로이센호」에 승선했던 체험을 기초로 해서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배안의 정경이 작자의 체험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내용이 의미하는 것까지 그의 체험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¹⁰⁾

「第七夜」에 묘사된 시대는 1900년 경, 즉 명치시대 중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명치 신정부는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일본을 유럽과 대등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구미 제국에서 제도·문화·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부국강병·식산흥업·문명개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일본을 빠른 시간 안

7) 같은 책, 554~556면 참조.

8) 笹淵友一 『夏目漱石-「夢十夜」論ほか-』(明治書院、1986年2月) 122면 참조.

9) 山田晃 『夢十夜參究』(朝日書林、1993年 12月) 142면 참조.

10) 近藤圭 「『夢十夜』の諸相(1)-その第七夜-」(『緑岡詞林』「第16号、青山学院大学日文院生の会、1992年3月」) 30면 참조.

에 발전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일본 정부 관료 및 유학생들이 서구의 문화·지식·기술 등을 배워 익히려고 선박을 이용하여 유럽을 왕래했다.

「第七夜」에 등장한 큰배에는 돛대가 세워져있다. 그리고 배 안에 살롱과 피아노가 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운행되는 대형 여객선에 돛대를 달고 다니는 배는 거의 없기 때문에 「第七夜」에 등장한 큰배가 어떤 배인지 쉽게 짐작 할 수가 없다.

논자의 조사에 의하면 「第七夜」에 등장한 배와 비슷한 모습을 한 선박은 큐슈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HUIS TEN BOSCH) 안에 있었다. 배의 이름은 「간코마루(觀光丸)」라는 증기선이며 이 배의 선상에는 돛대가 세 개 세워져 있다. 「간코마루」는 에도시대 말에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 국왕이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에 기증한 배로 일본 최초의 증기선이다. 하우스텐보스에서 「간코마루」를 승선하면 선상에서 선원들이 돛대 오르기와 돛대의 굵은 밧줄 당기기 등의 시범을 펼쳐 보이고, 관광객들에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명치시대 일본의 선각자와 지식인, 유학생들이 「간코마루」와 유사한 배를 타고 유럽을 왕래했던 것이다.¹¹⁾

3. 2 주인공 「나」의 투신자살 동기와 배경

주인공 「나」는 확실히는 모르나 큰배에 타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었으나 배 안에서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은 「벳사람」이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자꾸만 울고 있는 여자였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천문학과 신(神)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었다. 네 번째 만난 사람은 살롱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젊은 여자와 그 여자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젊은 남자였다.

첫 번째 만난 「벳사람」과의 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어느 날 「나」는 배 안에서 처음으로 벳사람을 붙들고 「이 배는 서쪽으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이 장면이 「나」와 타인과의 첫 번째 대화이다. 벳사람은 의아스러운 얼굴을 하고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라고 되물었다. 나는 「떨어지는 해를 쫓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벳사람은 껄껄 웃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서쪽으로 지는 해 종착지는 동쪽이냐. 그것은 사실이나. 동쪽에서 뜨는 해, 고향은 서쪽이냐, 그것도 사실이나, 몸은 물결 위, 키를 베개삼아, 흘러가라, 흘러가라」 하고 장단맞추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언제 육지에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마음에 불안을 느낀 「나」는 「이런 배를 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던져 죽어버릴까」 하고 생각한다.

두 번째 만난 「울고 있는 여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하늘이 흐려지고 배가 흔들렸을 때 「나」는 사라사(更紗:인물, 조수, 꽃과 나무 등 화려하게 무늬가 들어간 직물) 천 같은 것으로 만든 옷을 입은 여자와 만났다. 이 여자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자꾸만 울고 있다. 울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색깔이 새하얀 손수건으로 갖고 있다. 「나」는 이 여자를 보았을 때 슬픈 것은 나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의 「나」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사사부치 도모이치(笹淵友一) 씨는 여자의 슬픔은 「나」의 슬픔을 진정시켰고 다소나마 자살의 결심을 늦추게 하는데 작용했다고 논했다.¹²⁾

11) 하우스텐보스 편 『GUIDE MAP』(HUIS TEN BOSCH 발행, 2002年) 11면 참조.

12) 앞의 책, 笹淵友一 『夏目漱石-「夢十夜」論ほか-』, 125면 참조.

슬픈 것은 나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여자에게 동정과 공감을 느끼며 잠시나마 슬픔을 달랠 수 있었다. 「나」는 이 배 안에서 슬픈 것은 자기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동지(同志)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슬픔에 겨워서 울고는 있지만 주인공 「나」처럼 마음에 불안을 느껴 배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투신자살을 생각했기 때문인지 이 울고 있는 여성과 더 이상 따뜻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한다.

세 번째 만난 「외국인」과의 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배 안에서 만난 외국인은 「나」에게 다가와서는 천문학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잠자코 있자 금우궁(金牛宮) 위에 있는 북두칠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별도 바다도 모두 신(神)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신(神)을 믿느냐고 물었다. 외국인은 자연과학에 관계되는 서양학문과 종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었다. 금우궁(金牛宮) 위에 있는 북두칠성 이야기와 별도 바다도 모두 신(神)이 만든 것이라는 말은 우주의 구조와 천체의 현상, 운행 등을 연구하는 천문학(天文学)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외국인은 천문학(天文学)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외국인은 신(神)이 만든 것은 별과 바다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대지(大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만약 신(神)이 대지까지 만들었다고 했다면 「나」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른다. 이 외국인은 육지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망각했던가 은폐하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지금 있는 곳인 큰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이 외국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천문학」과 「신(神)을 믿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외국인이 등장하는 것은 더욱더 「나」의 마음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는 천문학과 신(神)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외국인의 말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후 「나」는 「세상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해 죽어버릴까」 하고 생각하며 그저 하늘만 쳐다 보고 잠자코 있을 뿐이다.

네 번째 만난 「젊은 남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나」는 배 안의 살롱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젊은 여자와 그 여자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키가 크고 멋진 남자를 만났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 사람 이외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배에 타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즉 이 젊은 남녀는 자신들이 현재 육지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젊은 남녀는 과거와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태양과 바다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젊은 남녀는 자신들이 선상 위에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 두 사람 일 이외는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위에 있는 타인의 존재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며 둘 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생(生)의 쾌락(快樂)을 추구하는 젊은 남녀로 작품 속에 묘사되었다.

피아노는 근대화되기 이전에 일본에는 없었던 악기이므로 증기선과 함께 근대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문학·신(神)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외국인의 말은 서양학문·서양문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주인공 「나」는 피아노를 치는 여자와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젊은 남자를 바라보고는 마음 속으로 따분함을 느낀다. 그것은 당시 급격히 일본에 유입되는 근대문명, 서양문화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상(船上)에서 「벧사람」, 「울고 있는 여자」, 「외국인」, 「젊은 남녀」 등 네 종류의 사람들을 대면했으나 그들에게 인간적인 정(情)을 느껴 마음을 터 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오히려 육지에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들과의 대면을 통해 「나」는 사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생(生)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만 깊어져 갔다.

또한 「나」는 남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여 함께 울어주고 대화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서양문화, 서양학문, 근대문명 등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한 「나」는 마음의 불안, 슬픔, 따분함을 절실히 느껴 마침내 투신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3. 3 투신 이후 체공시간의 깨달음

투신자살하기로 마음을 정한 「나」는 어느 날 저녁 주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과감하게 배 위에서 바다 속으로 뛰어 내렸다.

그런데 내 다리가 갑판을 떠나 배와 인연이 끊긴 그 찰나에 갑자기 목숨이 아까워졌다. 마음 속으로 안 뛰어들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싫으나 좋으나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아주 높게 만들어진 배인 듯 몸은 배를 떠났지만 발은 좀처럼 물에 닿지 않는다. 하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차츰 차츰 물 가까이로 떨어져 간다. 아무리 다리를 오므려도 가까이 다가간다. 물빛은 검었다.¹³⁾

「나」는 배 안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배와 인연이 끊긴 그 찰나에 갑자기 목숨이 아까워져 괜히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후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배에서 발이 떨어진 이상 자신이 행한 행동을 되돌리기에 시간적으로 늦었다. 싫으나 좋으나 그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곤도 게이(近藤圭) 씨의 눈에 의하면 사람이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발이 건물 혹은 지면을 떠나 되돌릴 수 없게 된 때에 투신을 한 사람은 대지(大地), 혹은 수면(水面)에 충돌해 죽을 때까지 의식을 잃어 기절 상태에 놓인다고 한다. 그러나 무의식의 심리는 평상시보다 훨씬 빨리 고속도(高速度)로 시간이 회전하여 과거의 여러 기억을 회상하는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¹⁴⁾

「第七夜」에서 투신 자살자 「나」가 갑판에서 몸을 던져 해면(海面)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찰나의 체공시간은 실체는 수초(數秒) 길어야 수십 초(數十秒)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여러 기억을 회상하는 대단히 긴 시간, 영원(永遠)에 가까운 시간이다. 작자인 나쓰메 소세키는 꿈을 작품화시킨다는 방법을 통해 이 체공시간을 거의 정지된 무한의 시간으로 붙잡아서 인간의 심리를 정밀하게 묘사했던 것이다. 그의 예술적 재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인공 「나」가 배와 인연이 끊긴 바로 그 찰나에 갑자기 목숨이 아까워졌다고 느꼈던 것은 사사부치 도모이치(笹淵友一) 씨가 논하고 있는바와 같이 「생명에 대한 집착」을 자각한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다.¹⁵⁾ 그가 선상에서 느낀 불안(不安)과 비애(悲哀)도 생명에 대한 애착, 생명의 욕구를 근거로 하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나」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라본 바다 물빛은 검은 색깔이었다. 원래 검은 색은 동

13) 夏目漱石 『夢十夜他二篇』 (岩波書店、1986年3月) 30면.

14) 앞의 논문, 近藤圭 「『夢十夜』의 諸相(1)-その第七夜-」, 36면 참조.

15) 앞의 책, 笹淵友一 『夏目漱石-「夢十夜」論ほか-』, 130면 참조.

서양을 막론하고 죽음과 저승의 어둠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그러므로 바다 물빛이 검은 색깔이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암흑세계를 묵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¹⁶⁾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일지라도 타고있는 편이 좋을 뻔했다고 깨닫지만, 그 깨달음을 이용해 보지도 못한 채 무한한 후회와 공포를 안고 검은 바다 쪽으로 조용히 떨어져 가고 있다. 작품 속의 「나」가 투신자살을 감행하여 선상을 떠나 바다에 떨어지는 그 체공시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일지라도 타고있는 편이 좋을 뻔했다고 깨달았다는 것은, 생(生)의 일회성(一回性), 그 운명적인 철칙(鐵則)을 작자는 독자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인간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세계를 떠나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¹⁷⁾

그렇다면 주인공 「나」의 투신자살은 마음의 불안과 슬픔, 따분함 때문에 행한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이었지만, 실제로는 한순간의 잘못된 착각(錯覺)에 의해 행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4. 『광장』에 나타난 이명준의 투신자살

4. 1 작품 구조와 시대적 배경

최인훈(崔仁勳, 1936~) 씨는 1960년에 작품 『광장』을 발표하면서 작가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960년은 학생운동의 해였지만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광장』의 해였다.¹⁸⁾

1960년 10월 『새벽』에 발표된 『광장』은 원고 매수로 약 600장에 이르는 중편소설이다. 그것을 단행본으로 내면서 거기에 약 200여장을 더 붙였고 그것이 소위 『광장』의 원형을 이루었다. 그것은 그 뒤 신구문화사에서 간행된 『현대한국문학전집』에 실릴 때 다시 섬세한 교정을 받게 된다. 또한 민음사에서 발행한 『광장』에서는 상당량 수정을 가했다. 『광장』이 신구문화사판에서 민음사판으로 바뀔 때, 작가 자신에 의해 문체와 내용에 주목할 만한 수정을 가했다. 그러나 이 수정이 신구판과 민음사판을 서로 다른 작품으로 볼 정도로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학과지성사의 두 가지 전집판에서 그는 다시 『광장』을 수정하였는데 민음사판과 대단한 거리를 갖고 있을 정도로 대폭적으로 고쳤다.¹⁹⁾

본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텍스트는 1997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발행된 『광장』을 택했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李明俊)은 대학 철학과 학생으로 아버지 친구이며 은행 지점장인 변성재 씨 집에 살았다. 그의 아버지 이형도 씨는 박헌영 밑에서 남로당 일을 하다가 북한으로 가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선전 책임자로 있으면서 대남 방송에 가끔 등장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그는 경찰서 사찰계 취조실에 불려가서 형사들에게 빨갱이로 몰려 구타를 당한다.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현재 어떤 연락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당하기도 한다. 아버지가 북한으로 간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이를 계기로 그는 남한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사랑하는 윤애를 남한에

16) 앞의 책, 山下主一郎 他9人訳 『イメージ・シンボル事典』, 65면 참조.

17) 이세형 「『夢十夜』 「第七夜」를 읽고」(『일본근대소설연구-나쓰메 소세키를 중심으로-』, 학사원, 1996년 4월) 176면 참조.

18) 김현 「사랑의 재확인 - 『광장』 개작에 대하여 -」(『광장/구운몽』, 문학과 지성사, 1997년 10월) 313면 참조.

19) 같은 논문, 313~314면 참조.

남겨두고 인천에서 밀수선을 타고 월북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북한은 사회주의 체도의 굳어진 공식인 명령과 복종만이 보일 뿐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명준이 월북을 해서 북한 농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니 그들은 농토를 팔고 살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북한의 농토는 나라 땅이었다. 그들은 지주 영감의 소작인에서 나라의 소작인으로 옮겨간 것뿐이다. 북한은 개인적인 욕망이 터부시되어 있는 고장이었고 일등을 해도 상품이 없는 곳이었다.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에서 살아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만족하는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일종의 허무주의적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²⁰⁾

이명준은 한국전쟁 때에 북한 인민군 정치보위부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그렇지만 그는 낙동강 전투에서 국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나의 선택의 갈림길을 맞게 된 그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했다. 그러나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싣고 가는 인도 상선 타고르호가 남지나해를 지나 항해하는 어느 날 그는 바다에 투신자살했다.

『광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 민족의 혼란기에 속하는 광복(光復)으로부터 한국전쟁(韓國戰爭)의 종전(終戰)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격동의 시기에 주인공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지역적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양쪽의 이념과 체제를 체험했다. 남한의 타락과 방종에 가까운 자유,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부자유를 체험한 그는 진실로 인간적인 사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독자에게 문제점을 던졌다.

때문에 『광장』은 광복으로부터 한국전쟁의 종전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 민족의 이데올로기와 남북분단 문제, 역사와 민족의 문제, 지식인의 사랑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소설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제기된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 문제는 오늘날까지 완결되지 않고 있다.

4. 2 이명준의 투신자살 동기와 배경

이명준은 낙동강 전투에서 국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나의 선택의 갈림길을 맞게 된 그는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했다.

이명준이 북한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가 남한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한 정치가의 부패와 그들의 정치 철학의 의문스러움, 남한 경찰서 형사들의 구타 때문이었다. 그가 중립국을 택한 이유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종일 거리를 싸다닌다고 해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를 갈망했기 때문이다.²¹⁾

이명준은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싣고 가는 삼천 톤급 인도의 상선 타고르호에 승선했다. 타고르호는 동지나해를 지나 홍콩에 잠시 머물렀다가 목적지를 인도(印度)로 잡고 항해했다. 타고르호가 가는 목적지가 중립국으로 나와 있지만 최종 목적지가 중립국의 어느 나라인지는 작품 속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일단 인도를 목적지로 해서 타고르호는 항해하고 있다.²²⁾

타고르호에 승선했던 이명준은 마흔 줄의 이 배의 선장과 영국에서 상선학교를 졸업한 무라지라고 하는 인도 관리, 돼지처럼 살이 찐 주방장, 늙은 뱃사람과 만나 선상에서 대화를 나눈다. 무라지라고 하는 인도 관리의 배 안에서의 살림 관리 등을 이명준에게 맡기었다. 그리고는 낮에는 하루 내내 술을 마시며 밤이면 기관실 위에 있는 부엌에서 요리사들과 카드 놀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20) 최인훈 『광장/구운몽』(문학과지성사, 1997년 10월) 111~123면 참조.

21) 같은 책, 165~174면 참조.

22) 같은 책, 21면, 25면, 184면 참조.

벳사람들이 이명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도를 향해 달리는 이 벳길은 그가 희망한 벳길이며 남한도 북한도 아닌 새 삶이 시작되는 벳길이다. 그런데 배 안 벽장문에 달린 거울에 비쳐진 그의 모습은 핏발 선 눈과 꺼진 불,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5월 달 새잎처럼 싱싱한 새 삶의 길에 내가 왜 이꼴인가」 하고 자신에게 묻는다.

특히 선장은 이명준에게 인도에 가면 자신의 조카인 근사한 미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라지 라는 인도 관리와 늙은 벳사람은 이명준에게 켈커타에 도착하면 술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낀다.²³⁾

이명준이 배 안에서 만난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허전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중립국도 자신이 이상으로 하는 광장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배 안에서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의 허전함을 깨닫게 된 것은 그에게 투신자살을 하게 만든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²⁴⁾

『광장』에서 갈매기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로 등장하고 있다. 배의 마스트에 매달려 있는 갈매기들은 갈갈, 깨죽 깨죽,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준은 이 갈매기들을 불길한 새들로 보았다. 그림자처럼 줄곧 이명준을 따라다니는 흰 갈매기들은 그의 뒤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묘사되었다.²⁵⁾

이명준은 작은 새와 어미 새, 두 마리의 갈매기에서 북한의 간호 장교로 종군하다가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은혜와 그녀의 벳속에서 죽은 자신의 딸 모습을 보게 된다. 즉, 작은 새는 은혜의 벳속에서 죽은 자신의 딸을 표상하고 있고, 어미 새는 은혜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²⁶⁾

갈매기는 이명준의 실패와 절망으로 점철된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끝끝내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들고 있다. 자신이 탄 배를 끝끝내 따라 다니는 흰 갈매기를 통해 그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과거의 삶의 고통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게 된다. 이런 과거 삶의 아픈 고통과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결국 스스로 투신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명준이 투신자살해 버리자 항해 중에 내내 따라다니던 흰 갈매기들은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보이지 않았다.²⁷⁾

작품 속에 이명준이 투신자살하는 모습은 『夢十夜』 「第七夜」와 같이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작자는 일부러 이명준이 자살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생략해 버렸던 것이다.²⁸⁾ 그러나 이명준이 배에서 바다물 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생략되었다고 해서 그의 투신자살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다.²⁹⁾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타고르호는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남지나 바다의 혼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등의 묘사는 이명준의 투신자살을 암시하고 있다.

죽기 직전에 이명준의 눈에 비친 바다는 푸른 광장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최후에 머무르려고 택한 바다는 이명준이 사랑했던 「은혜와의 사랑이 합일(合一)을 이룰 수 있는 장소」·「이데올로기

23) 같은 책, 174~184면 참조.

24) 같은 책, 177~180면 참조.

25)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문학과지성사, 2001년 5월) 216면 참조.

26) 앞의 책, 최인훈 『광장/구운몽』, 180~183면 참조.

27) 같은 책, 182~189면 참조.

28) 앞의 책,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175~176면 참조.

29) 성민엽 「최인훈, 혹은 남북조 시대의 소설」(『한국소설문학대계 42』, 동아출판사, 1995년 5월) 684면 참조.

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광장」이었던 것이다.³⁰⁾

이명준은 은혜의 배(腹)를 바다로 생각하며 은혜가 임신한 자신의 딸이라고 여겨지는 배속의 아이를 한 마리의 물고기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준은 바다를 「은혜와의 사랑이 합일(合一)을 이룰 수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은혜와 그녀의 배속에 있는 자신의 딸과의 만남이 가능한 장소」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준의 남한과 북한에서의 행동과 경험을 폭넓게 고려해보면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판단된다. 남한에 대한 비판이든 북한에 대한 비판이든 이데올로기는 이 작품을 관류하는 기본적인 큰 주제임에 틀림없다.³¹⁾

이명준이 푸른 바다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푸른 광장으로 보았다면, 그의 자살은 생전에 남한과 북한에서 이데올로기 선택의 한계와 갈등을 절실히 느끼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K C I

30) 김병익 「다시 읽는 『광장』」(『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1997년 10월) 339~340면 참조.

31) 앞의 책,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150면 참조.

5. 『夢十夜』 「第七夜」와 『광장』에 나타난 유사점

『夢十夜』 「第七夜」와 『광장』은 아래와 같은 유사점(類似點)이 있다.

첫째, 두 작품의 주인공이 자살하기 직전에 있었던 공간은 육지가 아니라 항해(航海) 중인 큰배의 선상(船上)이었다. 「第七夜」에 묘사된 큰배는 이름은 나타나있지 않지만 매일 끊임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엄청난 소리를 내는 증기선(蒸氣船)이다.³²⁾ 『광장』에 묘사된 배는 흰 페인트를 말쑥하게 칠한 삼천 톤급의 인도 배 타고르호이다.³³⁾

둘째,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항해 도중에 선상에서 바다에 투신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第七夜」의 주인공 「나」는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큰배에서 바다 속으로 뛰어내렸다. 『광장』의 이명준은 홍콩을 지나 인도로 향하는 타고르호에서 바다 속으로 뛰어내렸다.

셋째,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배 안에서 만난 외국인들과 진지하고 원만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第七夜」의 「나」는 천문학(天文学)과 신(神)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만났으나 그의 말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광장』의 이명준은 배 안에서 선장과 무라지 라고 하는 인도 관리, 주방장, 늙은 뱃사람 등 외국인 선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나 마음의 허전함을 느꼈다.

넷째,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모국(母國)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다. 「第七夜」의 주인공 「나」는 배에 함께 탄 외국인들과 갈등을 나타내어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모국인 일본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³⁴⁾ 『광장』의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지식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 어느 한쪽 나라를 선택하여 그 사회가 안고있는 모순된 점, 이데올로기 문제 등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애정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³⁵⁾

32) 앞의 책, 夏目漱石 『夢十夜他二篇』, 28~29면 참조.

33) 앞의 책, 최인훈 『광장/구운몽』, 21면 참조.

34) 앞의 책, 夏目漱石 『夢十夜他二篇』, 29~30면 참조.

35) 앞의 책, 최인훈 『광장/구운몽』, 123면, 169면, 188면 참조.

6. 『夢十夜』 「第七夜」와 『광장』에 나타난 차이점

첫째, 두 작품에 나타난 투신자살 묘사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第七夜」는 꿈을 작품화시킨다는 방법을 통해 주인공이 배에서 투신한 이후의 체공시간을 거의 정지된 무한(無限)의 시간으로 붙잡아서 그 속에 인간 심리의 변화과정을 정밀하게 묘사했다. 『광장』은 주인공이 선상에서 바다를 향하여 투신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기러기와 바다가 의미하는 것과 항해(航海)해 가는 배 위에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통해 은유적으로 이명준의 투신자살을 독자에게 암시시키고 있다.

둘째, 두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의 자살의 동기에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第七夜」의 주인공 「나」가 자살하는 동기는 선상(船上)에서 「벧사람」·「울고 있는 여자」·「외국인」·「젊은 남녀」 등과 대면했으나 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또한 근대 문명, 서양문화, 서양학문 등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배 안에서의 일들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한 「나」는 마음의 불안과 슬픔, 따분함을 질실히 느껴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것이다. 『광장』의 이명준이 투신자살을 하게 된 동기는 복합적이다. 그는 배 안에서 만난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허전함」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탄 배를 따라 다니는 갈매기를 통해 과거의 삶의 고통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게 된다. 그는 배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삶의 아픈 고통과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결국 바다를 「은혜와의 사랑의 합일을 이룰 수 있는 장소」·「은혜와 그녀의 배속에 있는 자신의 딸과의 만남이 가능한 장소」·「이테올로기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푸른 광장」으로 생각하여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것이다.

셋째, 주인공이 선상에서 바다에 투신한 이후의 심리묘사가 두 작품에는 차이가 있다.

「第七夜」의 「나」는 과감하게 선상에서 바다 속으로 뛰어 내렸다. 그러나 배와 인연이 끊긴 그 찰나에 갑자기 목숨이 아까워짐을 느낀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일지라도 타고있는 편이 좋을 뻔했다고 깨닫지만, 그 깨달음을 이용해 보지도 못한 채 무한한 후회와 공포를 안고 검은 바다로 조용히 떨어져 가고 있다. 자신의 강한 의지에 따라 투신자살을 감행했으나 배와 인연이 끊긴 찰나에 후회와 공포를 느꼈던 것이다. 즉 「第七夜」는 투신한 이후의 주인공의 심리변화가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심리변화에 대한 사실묘사로 인간의 변화무쌍한 심리변화 과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광장』은 투신하기 직전의 주인공 심리변화가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선상(船上)에서 배와 인연이 끊기려고 하는 순간 이명준의 눈에 비친 바다는 푸른 광장이었다. 하지만 작품 속에 선상에서 투신한 이후의 이명준의 심리변화 과정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투신한 이후 이명준의 심리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있지 않은 점은 고려해보면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 망설임이 없었던 것이다.

7. 결 론

위와 같이 「나쓰메 소세키 작품 『夢十夜』 「第七夜」와 최인훈 작품 『광장』에 나타난 투신자살」에 대하여 비교해 보았다. 논자가 분석한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夢十夜』 「第七夜」와 『광장』 두 작품에는 구성상의 유사점(類似點)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작품에는 주인공이 항해(航海) 도중에 선상에서 바다로 투신자살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배 안에서 만난 외국인들과 진지하고 원만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모국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유사점이 있다.

둘째, 두 작품에 나타난 투신자살 묘사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第七夜」는 꿈을 작품화시킨다는 방법을 통해, 주인공이 배에서 투신한 이후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의 체공시간을 거의 정지된 무한의 시간으로 붙잡아서 그 속에 인간 심리의 변화 과정을 정밀하게 투영시켰다. 『광장』은 주인공이 선상에서 바다를 향하여 투신하는 장면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기러기와 바다가 의미하는 것과 항해해 가는 배 위에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통해 은유적으로 이명준의 투신자살을 독자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투신한 이후의 이명준의 심리변화 과정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셋째, 두 작품에 나타난 투신자살의 동기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있었다. 「第七夜」의 주인공 「나」가 투신자살을 하게 된 동기는 선상에서 외국인들과 대면했으나 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결국 「나」는 마음의 불안과 슬픔, 따분함 등을 느껴 바다에 투신했던 것이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이 투신자살을 하게 된 동기는 복잡적이다. 「바다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푸른 광장으로 생각한 것」· 「선상에서 느꼈던 마음의 허전함」· 「바다를 은혜와의 사랑의 합일(合一)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한 것」· 「바다를 은혜와 그녀의 배속에 있는 자신의 딸과의 만남이 가능한 장소로 생각한 것」 등이다. 그 중에서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이 가장 큰 투신자살 동기였다.

넷째, 두 작품에 나타난 투신자살의 특징적인 차이와 한일 양국 근현대화 과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낼 수가 있었다. 「第七夜」에는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과 근대문명, 서양문화 유입에 대해 당시 지식인의 마음의 갈등과 불안이 투영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 근대사회가 안고 있었던 개인적인 불안(不安)과 비애(悲哀)의 문제가 작품에 나타난 것이다. 『광장』은 광복(光復)으로부터 한국전쟁(韓國戰爭) 종전(終戰)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에 한 사람의 젊은 지식인이 이데올로기의 대립 때문에 겪는 갈등의 문제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현대사회가 안고 있던 사상과 체제, 이념의 문제가 작품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参考文献】

- 김병익(1997) 「다시 읽는 『광장』」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p. 339-340
- 김옥동(2001)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p. 175-216
- 김정관(1997)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인식구조 연구-이상.장용학.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68-273
- 김현(1997) 「사랑의 재확인 - 『광장』 개작에 대하여 -」 『광장/구운몽』, 문학과 지성사. p. 313-314
- 김홍연(1988) 「최인훈 소설의 인물과 서술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16
- 권혁건(1996) 『일본근대소설연구-나쓰메 소세키를 중심으로-』, 학사원. p. 176

- 성민엽(1995) 「최인훈, 혹은 남북조 시대의 소설」 『한국소설문학대계』 42, 동아출판사. p. 684
- 이인복(1989) 『죽음과 구원의 문학적 성찰』, 우진출판사. p. 182
- 崔明姬(1993) 「『夢十夜』論-第一夜.第七夜を中心として-」 『日本研究』 4, 慶南大日本問題研究所. p. 141-159
- 崔明姬(1996) 「『第七夜』覚書」 『国文』 第84号, お茶の水女子大学. p. 43-51
- 최인훈(1997)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p. 21-189
- 하일식(2002)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한국사』, 일빛. p. 244-247
- 坂本育雄編(1996) 『夏目漱石 『夢十夜』 作品論集成 II』, 大空社. p. 45-492
- 坂本浩(1979) 「『夢十夜』の理念と構造-人間存在の探求-」 『夏目漱石-作品の深層 世界-』, 明治書院. p. 164-203
- 笹淵友一(1966) 『夏目漱石-『夢十夜』論ほか-』, 明治書院. p. 119-140
- 山下主一郎 他9人訳(1989) 『イメージ.シンボル事典』, 大修館書店. p. 65-614
- 山田晃(1993) 『夢十夜参究』, 朝日書林. p. 142

A Comparison of Suicides in Natsume Soseki's 『Ten Night Dream』 , 「The Seventh Night」 and Inhun-Choi's 『The Square』

Kwon, Hyuk-Gun · Im, Sung-Gyu

ABSTRACT

What I have compared and analyzed abo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some structural between Soseki's novels. 『The Night Dream』 , 「The Seventh Night」 , and Choi's novel 『The Square』 . Second, some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describing the suicides between the two novelists' works. Third, I have uncovered the obvious differences of the motives for suicide between the two novelists. Fourth, I have pointed out the relevance between the differences of suicide and the modernization process both in Korea and Japan.

There are some differences which can represent most of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ovelist's works. In 「The Seventh Night」 , we can see the conflicts and anxiety of the contemporary intellectuals against the Japan's sudden modernization and its civilization following the influx of Western culture. The novel embodies the individual anxiety

and sorrow prevalent in the society of the modernization oriented Japan. 『The Square』 reflects the problematic conflicts which a young intellectual feels between the two opposing ideologies at the time of turbulence from the independence to the Korean Conflict. This fictional embodiment stands for the political thoughts and systems and the conflicting ideologies in the modernizing society of North and South Korea.

주제어 : 나쓰메 소세키, 최인훈, 『夢十夜』 「第七夜」, 이명준, 광장,
투신자살, 불안

투 고 : 2002. 11. 30
2차 심사 : 2002. 12. 14
3차 심사 : 2003. 1. 14

권 혁건

住 所 : (609-761)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014 선경3차 아파트 308-1302

電 話 : 051-514-3187

E-mail : kwon6134@hanmail.net

임 성규

住 所 : (330-704)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5번지 천안대학교 어문학부 일본어학전공

電 話 : 041-620-9417

E-mail : imsung@cheonan.ac.kr

KCS I